

Alex Hank  
*Only the Present Rise*  
Lehmann Maupin Seoul  
March 11 – April 18, 2026

알렉스 행크  
《오직, 지금》  
리만머핀 서울  
2026년 3월 11일-4월 18일



Alex Hank, *The Rise of Rome*, 2025

Lehmann Maupin presents **Alex Hank's** first solo exhibition in Asia, featuring a focused selection of five graphite portrait drawings. Executed on locally sourced birchwood collected from the artist's barn in the Swiss Alps, the works foreground drawing as both an act of construction and an intimate mode of looking. In this presentation, Hank turns inward, concentrating on the human figure as a site where precision, vulnerability, and psychological tension converge.

The medium itself plays a central role in this inquiry. Birchwood lends the portraits a palpable sense of weight and resistance, reinforcing the corporeal presence of the sitters. The pronounced woodgrain, suggestive of human veins, operates not merely as support but as an active compositional ground. In contrast, graphite brings in delicacy and immediacy, retaining the spontaneity of works on paper even at a commanding scale. This interplay between softness and structure mirrors the subtle negotiations of identity, power, and intimacy that animate the drawings. Through this material tension, the figures emerge as self-possessed yet vulnerable. Often absorbed in their interior worlds, they resist full access. Hank's sustained attention to his subjects is evident; intimacy surfaces as the sitters withhold as much as they reveal, generating a charged space between privacy and the artist's impulse to observe.

In *The Saint in Leather* (2025), Hank deliberately applies graphite more lightly to the background, allowing it to remain soft and atmospheric. By contrast, the figure in the center, clad in a leather jacket, is rendered with meticulous precision; each stitch and crease is articulated through sustained, concentrated mark-making. Distinct from the other works on view, it introduces a forested backdrop, recalling the atmospheric tension of René Magritte's surrealist *The Blank Signature* (1965), in which a rider and horse are rendered in visual paradox, interwoven with the forest in ways that destabilize spatial coherence.

In *The Rise of Rome* (2025), the artist draws on Michelangelo's *Pietà*, echoing the posture of Christ's body leaning against the Virgin. Referencing the moment after the Crucifixion, the work subtly reconfigures this iconic devotional scene. By omitting the buttons of the man's shirt, the artist loosens the image from a fixed historical setting. Instead of grief, the male figure appears suspended in bliss, transforming lamentation into an image of transcendence and quiet exaltation.

Hank cites an additional wide range of influences, from Pablo Picasso's sustained engagement with his muses, to the haunting imagery of Leonora Carrington, to the quiet intimacy of Elizabeth Peyton's portraits. Across these references, the act of looking remains central. Each work becomes a site of encounter where empathy, tension, and introspection coexist.

리만머핀 서울은 알렉스 행크의 아시아 첫 개인전에서 자작나무에 흑연으로 작업한 드로잉 다섯 점을 선보인다. 스위스 알프스에 위치한 작가의 작업실 인근에서 채집한 자작나무 드로잉은 일종의 관계 구축의 행위이자 친밀한 응시의 방식을 드러낸다. 작가의 시선은 외관의 재현을 넘어 내면으로 스며들며, 선의 정밀함과 그에 깃든 취약함, 미묘한 심리적 긴장이 교차하는 자리로서 인간 형상에 머무른다.

작가의 탐구에서 매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작나무는 화면에 물리적 밀도와 저항감을 더하며 인물의 신체적 현존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또한, 마치 혈관을 연상시키는 나뭇결은 단순한 지지체가 아닌 화면을 능동적으로 조직하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흑연은 섬세함과 즉시성을 더하며 단단한 바탕과 유연한 선 사이에 긴장과 리듬을 만들며, 이로써 종이 드로잉의 특징적인 빠른 호흡과 즉흥성은 유지된다. 화면 속 인물들은 깊은 내면 세계에 잠긴 듯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 작가의 응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드러내는 만큼을 감추며 사적인 영역과 이를 포착하려는 시선 사이에 미묘하고 팽팽한 긴장을 형성한다.

〈가죽을 두른 성자(The Saint in Leather)〉(2025)에서 작가는 흑연을 의도적으로 얇게 적용해, 부드럽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묘한 분위기를 구현한다. 화면 중앙에 위치한 가죽 재킷을 입은 인물은 극도로 치밀한 정밀함으로 묘사된다. 가죽 재킷의 바느질과 주름 하나하나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필선으로 구축되며, 물질의 질감이 또렷이 드러난다. 다른 작품과 달리 숲을 배경으로 도입한 이 작품은 르네 마그리트의 〈The Blank Signature〉(1965)을 떠올리게 한다. 말과 기수가 숲과 시각적 역설 속에 뒤얽혀 공간적 일관성을 전복하는 이미지처럼 행크의 화면 역시 인물과 배경의 관계를 미묘하게 교란하며 인물과 배경의 경계를 흐른다.

〈로마의 부상(The Rise of Rome)〉(2025)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영감을 받아 성모 마리아에게 기댄 그리스도의 신체 구도를 환기한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을 애도하는 성모의 순간을 참조하면서도, 작가는 이 종교적 장면을 미묘하게 전환한다. 특히, 셔츠의 단추를 의도적으로 생략해 의상이 시대를 특정할 수 없는 튜닉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이미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분리한다. 그로 인해 비탄함 대신 황홀감과 충만에 잠긴 남성의 모습이 드러나며, 전통적 애도의 장면은 신비롭고 고요한 행복의 이미지로 새롭게 변주된다.

앞서 언급한 영향과 더불어 행크는 자신의 작업에 영향을 준 다양한 계보를 언급한다. 자신의 뮤즈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구한 파블로 피카소, 몽환적이고도 불안한 이미지로 잘 알려진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작가 레오노라 캐링턴, 인물의 고요한 친밀성을 포착해 온 엘리자베스 페이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소환한다. 이러한 참조적 이미지 속에서 '본다'는 행위는 중심적 위치를

Across the exhibition, Hank invites viewers into an encounter defined less by recognition than by attunement. As observers, we seek clarity, yet the artist resists disclosure, leaving space for mystery and inviting us to look beyond the mask without ever fully uncovering the subject.

### About the Artist

Alex Hank (b.1973, Mexico City; lives and works in Switzerland) is a contemporary visual artist known for his ability to merge different styles and artistic disciplines. His work explores the essence of today's society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the human being capturing the character of the portrayed individual and inviting reflection on issues of power, intimacy, innocence, and other human emotions. Throughout his career, Hank has used a variety of techniques such as photography, painting, sculpture, and drawing and ventured into other disciplines such as acting, music, video, and writing, demonstrating his creative versatility across multiple media. Hank has exhibited internationally with Richard Nagy in London; Eva Presenhuber in Vienna; Groefling Maag in Switzerland; Ramis Barquet and Generous Miracles in New York, and Emma Molina in Monterrey. A solo exhibition is forthcoming at the Elgiz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Istanbul, Turkey in 2026.

점한다. 각각의 작품은 공감과 긴장, 성찰이 공존하는 만남의 장이 되며, 초상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인식해 가는 과정으로 확장된다.

작가는 각 인물의 직관적 인식보다는 일종의 조율과 감응으로 시선을 이끈다. 관람자는 명료함을 기대하지만, 작가가 담아낸 인물들은 쉽게 드러내기를 거부하며 신비로움의 여지를 남긴다. 그는 얼굴의 형상 너머를 바라보도록 유도하면서도, 끝내 대상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는다.

### 작가 소개

알렉스 행크(1973년 멕시코시티 출생, 스위스 거주 및 활동)는 서로 다른 양식과 예술 장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온 동시대 시각 예술가이다. 그는 인간 형상을 통해 오늘날 사회의 단면을 탐구하며, 인물의 성격을 포착하는 동시에 권력, 친밀성, 순수성 등 다양한 감정의 층위를 성찰하도록 이끈다. 사진, 회화, 조각, 드로잉을 넘나들며 작업해 온 그는 연기, 음악, 비디오, 글쓰기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매체 전반에 걸친 창작 역량을 보여준다. 또한 런던의 리처드 나기(Richard Nagy Ltd.), 비엔나의 에바 프레젠후버(Galerie Eva Presenhuber), 스위스의 그레플린 마그(Groefling Maag), 뉴욕의 라미스 바르케(Ramis Barquet)와 제너러스 미라클(Generous Miracles), 몬테레이의 엠마 몰리나(Emma Molina) 등에서 국제적으로 전시한 바 있다. 2026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위치한 엘기즈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Alex Hank, *The Long Kiss Goodnight*, 2026 (detail)

**Lehmann Maupin**

Rachel Lehmann and David Maupin co-founded Lehmann Maupin in 1996 in New York. Since inception, Lehmann Maupin has served as a leading contemporary art gallery with locations in the U.S., Europe, and Asia. For over 25 years, Lehmann Maupin has been instrumental in introducing international artists in new geographies and building long-lasting curatorial relationships. Known for championing diverse voices, the gallery's program proudly features artists whose work challenges notions of identity and shapes international culture. Today, the gallery has permanent locations in New York, Seoul, and London, as well as team members throughout Asia and Europe.

**Seoul**

213, Itaewon-ro  
Yongsan-gu, Seoul 04349  
+82 2 725 0094  
seoul@lehmannmaupin.com

**Contact**

Adriana Elgarresta  
Global Director of Communications & Marketing  
adriana@lehmannmaupin.com

McKenna Quatro Johnson  
Communications Manager  
mckenna@lehmannmaupin.com

**리만머핀 소개**

1996년 라셀 리만과 데이비드 머핀이 뉴욕에 설립한 리만머핀은 개관 이래 선도적인 현대미술 갤러리로서 꾸준히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유럽, 아시아로 지리적 확장을 도모해 왔다. 지난 25년 이상 리만머핀은 국제적인 작가들을 새로운 지역에 소개하고 지속적인 큐레이토리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다양한 예술적 목소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갤러리 프로그램은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담론에 도전하고 새로운 세계 문화를 창출하는 예술가들을 선보인다. 현재 뉴욕, 서울, 런던에 상설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팀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